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0>

학승이 물었다.
 “노지(露地)의 흰 소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달빛 아래에서 색은 무용지물이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을 먹습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에나 지금이나 씹는 것이 없어.”
 학승이 말했다.
 “제발 스님께서 대답해주시시오.”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노승은 응당 이별 뿐이야.”

問 如何是露地白牛 師云 月下不用色
 云 食暇何物 師云 古今嚼不著
 云 請師答話 師云 老僧合與麼

길 위에 흰 소는 심우도에 나오는 소인데 검은 소는 중생의 습성이 많이 배어 있는 마음에 비유한 것이고 흰 소는 중생의 습성이 사라져서 깨끗한 마음상태를 비유한 것이다. 흰 소는 부처의 심성을 회복한 청정한 상태이다.

학승은 길 위에 흰 소에 대해 조주 스님의 선적 견해를 물은 것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의 대답은 시큰둥하다. 검은 소든 지 흰 소든 달빛 아래 서있으면 모두 흰 소가 된다. 따라서 소가 가지고 있는 색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조주 스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흰 소? 그게 무슨 그리 대단하다고... 원래 모두 흰 소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다.

신수종인 북종선에서는 닦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해능종인 남종에서는 닦음은 중요하지 않고 깨달음을 중시한다. 중생은 원래 부처이다.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선사의 말을 듣고 사람이 깨달으면 그 순간 중생의 무명(無明)은 거둬지고 밝은 상태가 된다. 검고 어두운 것은 무지(無知)한 상태이다. 사람이 깨달아 알면 무지는 즉시 사라지고 밝음만 남는다는 것이 남종의 선법인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흰 소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그 소는 형체가 없어서 무엇을 먹거나 씹지도 않는다. 달아서 졸어들 것이 없고 자라날 것도 없다. 그런데 무슨 색깔이 있겠는가. 공연히 분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흰 색과 검은 색을 갈라놓는 것이다. 마음 그 바탕은 성인이나 중생이나 똑같다. 모두 한 결 같이 깨끗하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인 것이다.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마음으로 무언가 헤아리려하면 어긋나 버린

선과 도는 뜻이 없다

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은 세 번 치고 말했다.
 “노승이 그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師示衆云 擬心即差 僧便問 不擬心時如何
 師打三下 云 莫是老僧辜負 闍黎麼

이 법은 조금도 의심 없이 그대로 들어와야 한다. 도(道)에 대해 약간의 망설임이나 의심이 있게 되면 그 의심 자체가 도와 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래서 예부터 선사들은 헤아리지 말라 했다. 이 절에 있어서 조주 스님도 마찬가지로 설법하고 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선사가 방금 헤아리지 말라고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한 여러 석은 사람은 금방 헤아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어떤 스님도 ‘헤아리지 않는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고 헤아리는 질문을 한 것이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주장자로 3번이나 두들겨 쳤다. 그러면서 조주 스님은 법에 대한 가르침은 정확하고 엄격한 것임을 설명했다. 그 설명은 “주장자로 너를

믿음은 도에 들어가는 지름길

마음 그 바탕은 성인이나 중생이나 똑같다

때리는 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대를 위해 이러한 것이다. 먼 훗날 내가 도에 대해 알게 되면 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렇다. 도에 대해서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헤아리려 하면 안 된다. 도는 헤아리면 절대 알지 못한다. 선사가 한 마디 했을 때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행하면 비로소 도에 들어갈 자질이 되는 것이다. 다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다못해 ‘진실(眞實)’이라는 과제 하나만 해도 그렇다. 무엇이 진실인가? 3아승지검을 찾아다녀 보라. 과연 그대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무릇 문답이라는 것은 뜻(意)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뜻에 떨어지지 않고 스님은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가 하나 물어 보아라.”
 학승이 말했다.
 “청컨대 스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 속에서는 옳다. 그러다 하지 마라.”

問 凡有問答落在意根 不落意根師如何對
 師云 問學云 便請師道 師云 莫向者裡是非

선(禪)을 말하고 도(道)를 말할 때 절대 뜻에 떨어지면 안 된다. 선과 도는 뜻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다. 만약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한다면 벌써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체로 대답에는 어떤 뜻을 포함하게 돼 있으므로 대개 뜻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조주 스님과 같은 선사들은 어떻게 뜻에 떨어지지 않고 선을 보일 수 있을까? 학승은 이것이 궁금해 질문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천만번 설명해서는 안 될 일이고 네가 직접 한번 나에게 물어 보라고 하면서 현장 설법을 하려고 했다. 이것은 마치 조주 스님의 선기를 불 기회였는데 학승은 딱히 질문이 생각나지 않았는지 그냥 설명해 달라고 재정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여기서는 옳다. 그러다 하지 말라”하고 말을 마친 것이다.

오랜만에 조주 스님의 선기를 엿볼 기회였는데 실제 응답이 없어서 안타깝게 됐다. 그런데 조주 스님의 뜻에 떨어지지 않는 답변은 본 <조주록>에 여러 번 나오고 있으므로 그리 실망할 일은 아니다. 독자들은 각자 존경하는 선사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길 바란다. 그 답변이 조주 스님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관찰을 것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용녀(龍女)가 부처님께 친히 바쳤다고 하는데 무엇을 바친 것입니까?”
 조주 스님은 두 손으로 바치는 자세를 취했다.

問 龍女親獻佛 未審將什麼獻
 師以兩手作獻勢

용녀헌공(龍女獻供)은 <법화경>「제바품」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용왕의 여덟 살 난 딸은 삼천대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주(寶珠)를 부처님께 바쳤다. 부처님은 이것을 기꺼이 받으셨고 용녀는 즉시 성불했다.

용녀가 보주를 공양 올리고 성불한 것은 보주를 올리고 성불한 것이 절대 아니다. 보주를 올리고 성불했다면 수많은 불사를 했던 양나라 무제도 즉시 성불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지 않은가. 용녀가 성불한 것은 부처님께 믿음을 바친 것이다. 믿음은 도에 들어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런데 용녀가 올린 보주는 무엇인가? 그것은 받들어 올린 빈 양 손이다. 알겠는가?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② 어록의 완성

일상의 문답으로 이루어지다

당대 말기에는 마조도일과 석두회천의 계통에서 선풍이 크게 전개됐다. 소위 호남의 석두종에 대해서는 진금포(眞金鋪)라 했고, 강서의 흥주종에 대해서는 잡화포(雜貨鋪)라 불렀던 것도 그 결과였다. 그들에게 선의 사상과 수행법과 교화를 전승한 주요 수단은 어록이었다. 어록은 선자의 언행록인 까닭에 문하의 수행자들에 대한 훈계 곧 시중(示衆)과 상당(上堂) 및 전기 곧 행장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중심은 다른 선자와 행한 법거랑 및 제자와의 문답 등에 대한 기록이었다. 문답(問答)은 이미 당대 초기부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능가사지기(楞伽師實記)>(716)에 수록돼 있는 지사문의(指事問義)와 같은 방식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지사문의의 스승이 제자에게 구체적으로 사물을 가리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그에 대해 제자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마조도일에 의해 대기대용(大機大用)이 확립됨으로써 문답의 성격은 일변했다. 마조의 선풍에서는 일상생활 그 자체가 선(禪) 아님이 없었기 때문에 선의 경지를 작용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시돼 일상의 모든 측면에서 사용하는 보통의 언어 그대로 문답이 이뤄지게 됐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 혹은 그런 일장에서 편찬된 것이 선어록이었다. 때문에 선어록 자체가 선의 깨침이 구체적인 측면과 인격을 통해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상의 표명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어록의 선구는 후마진염(侯莫陳瑛)의 <돈오진종금강반야수행달피안법문요결(頓悟眞宗金剛般若修行達彼岸法門要決)>과 하택신회(荷澤禪會, 684~758)의 <남양화상문답집지(南陽和尚問答雜徵義)>를 들 수가 있다.

당대에는 대단히 많은 어록이 편집됐는데 그러한 것들에 의해 후대에 어록이 새롭게 편집된 예도 많다. 이와 같이 어록이 성행한 배경으로는 선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교류해 문답상량이 대단히 성행한 까닭이었다. 당시는 수행자가 깨침을 목표로 삼아 각 지역의 선자들을 탐방하면서 수행을 쌓아갔기 때문에 편참(遍參)이라는 수행의 형태가 확립돼 있었다. 마조도일 이후의 선에서는 인간의 존재가 그대로 진실한 것으로 긍정됐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 확립된 선풍이 곧 조사선(祖師禪)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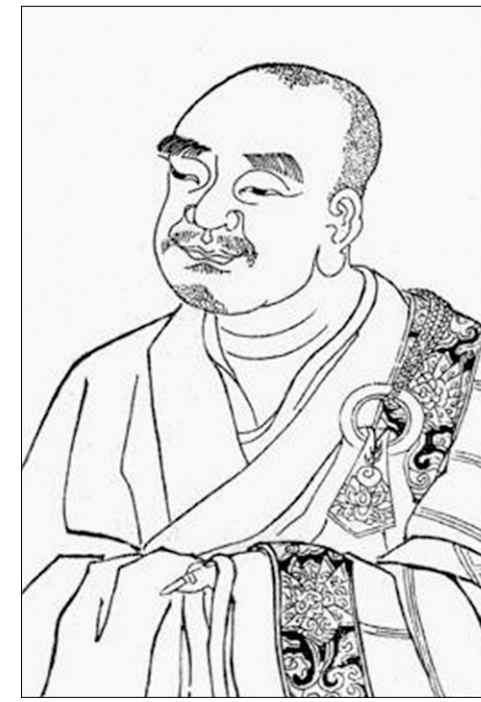
대체로 현존하는 당나라 시대의 조사선의 선적은

대부분이 오대·송초(五代·宋初) 무렵에 편집된 것이다. 이미 어록이라 불리우는 것이 <송고승전>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듯이 그러한 것들이 특별히 어록으로 정리된 것은 소위 기관(機關)과 계승(偶頌)의 영역을 벗어나 새롭게 그 특색이 반성되고 의식됐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고전화(古典化)이다. 마치 <조당집>(952) <경덕록>(981) <송고승전>(988) <경덕전등록>(1004) 등의 편집이 서로 연속해 행해지던 무렵이다.

본래 어록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機關)과 이치(理致)는 단순한 기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통(拈拄)되고 평창(評唱)되는 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서 기관은 스승이 학인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제시하는 갖가지 수완 내지 방편을 말한다. 또 이치는 스승이 경론의 도리를 제시해 제자를 교화하는 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생생한 언어는 입으로부터 귀로 전달되는 가운데 점차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미된다. 마침 당말·오대의 동란기를 지나 전통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시작되는 송대 초기에는 그러한 요구가 강하게 대두됐다. 특히 당말·오대를 통해 비교적 평온했던 강남지방에서 당대의 어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 중심은 법안종(法眼宗)으로서 영명 연수(永明延壽, 904~975)의 <중경록>도, 도원(道原)의 <경덕전등

록>도 모두 법안종파에 속한다. 이보다 앞선 <조당집>도 또한 같은 계통에서 나온 것이다. 본래 오대(五代)·십국(十國) 가운데 오월(吳越)과 남당(南唐)은 중원의 전란의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당 말기에 불교의 유산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 그와 같은 유산 가운데 하나가 기존의 선자들에게 대한 기록물이었다. 그 결과 송대 초기 어록의 성립은 법안종의 연수와 도원의 업적과 병행해 임제종의 황룡파(黃龍派) 사람들의 활동에 의한 바가 컸다. 그것은 <보림전>으로부터 <조당집> <경덕전등록> <천성광등록> 등 소위 등사(叢史)의 계보와는 다른 새로운 선종문헌의 성립을 의미한다. 선이 등사류의 기연에만 속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으로 유동적인 발전의 시기에 출현해 이후에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공안집(公案集)의 시대를 맞이했다.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마조도일선사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범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범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력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